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대영(金晔鎣)**

정주리(丁珠利)***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G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법적보호자)의 허락을 구한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적으로 508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부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단독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반면, 모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만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자녀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고양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초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 이 논문은 김대영(2018)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

** 제1저자, 운남초등학교 교사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I.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에는 현재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직업세계는 현재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이를 계발하도록 도와주어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에 진로활동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해가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또한 2015년 12월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교육부, 2015).

초등학교 시기는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Gottfredson, 1981). 이 때 자신에 대한 이해, 일이 갖는 역할과 의미, 사회적 행동,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 등에 대해 인식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함께,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며, 직업적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박한샘, 2010). Super(1990)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아동기 초기에는 환상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비교적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해 탐색하며, 자기의 적성과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진로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Clutter, 2010).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원만한 진로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지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Herr, Cramer, & Niles, 2004).

특정 시기에 이루어야 할 진로발달과업은 진로성숙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진로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연령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대한 성취수준으로 정의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진로성숙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발달과업을 달성해가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며(Gottfredson, 1981), 아동기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Hartung, Prifeli, & Vondracek, 2005; Magnuson & Starr, 2000). 하지만 이제까지 아동기의 진로성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많은 연구자들이 본격적인 진로지도는 중·고등학교부터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신은영, 김누리, 2004; 정경은, 이해경, 2005). 뿐만 아니라 진로성숙에 개인적인 요인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진로 프로그램

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을 뿐(이진선, 이규민, 2015; 조효정, 황매향, 2014),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은 아동기의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과업들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진로지도 및 교육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채진영, 2010; Super, 1990).

최근의 진로이론에서 널리 주목받고 있는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에 있어 개인적 특성과 함께, 환경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Lent, 2005). 특히 이 중 부모 관련 변인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변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양난미, 2008). Bronfenbrenner(1989)의 생태체계이론에서도 아동의 행동, 인지, 동기,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는 부모라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에 초등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Hartung et al., 2005). Young과 Friesen(1992)은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에 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녀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는 현실적인 포부의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아동에게 제공하고, 아동은 부모를 통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Schunk & Meece, 2006). 또한 아동에게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노력은 아동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Bandura, 1977). 한상근(200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선호직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부모를 꼽았다.

자녀의 학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모학습관여(parental academic involvement)는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가 행하는, 학업분야의 멘토링과 학습코칭을 포함한 자녀학습에 관여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김종덕,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효과적으로 자녀교육에 관여했을 때, 자녀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이는 자녀의 진로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난미, 이은경, 2008). Young과 Frieson(1992)도 부모의 긍정적 관여가 아동의 진로선택, 진로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Keller과 Whiston(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아동의 진로 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lores와 O'Brien(2002)는 부모학습관여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예측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과도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들의 진로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모,

심혜숙, 2010; 김홍석, 심혜숙, 2009; 박외자, 2010; Song, Bong, Lee, & Kim, 2015). 이처럼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자녀의 진로성숙을 위해 부모의 긍정적인 역할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자녀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들 중, 주목해볼 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꼽을 수 있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수행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힘든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는 자기 신념이며(김아영, 박인영, 2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한 진로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이나 신념을 말한다(이현림, 200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이나 진로선택의 영역에서 인지적·동기적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목표 설정과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홍석, 김정섭, 2015).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도전적 과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준다(Bandura & Schunk, 198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임을 밝힌 선행연구(고복순, 김영혜, 2011; 한수정, 2013)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주도적으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게 하고,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et al., 2001). 이은경(2001)은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김수리와 이재창(2007)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진로성숙 발달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상황에서 진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외자, 2010).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더 높은 학업성취에 도달하기 위한 도전의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업 선택 범위와 선택한 분야에서의 지속성 및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andura, 1977, 2001). Crites(1978)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은 학업성취에 의해 제한을 많이 받으며, 학업성취는 진로성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공인규, 정홍식, 안창규(2007)의 연구에서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부진과 학업적인 자신감 부족으로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학습자의 학업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복순, 김영혜, 2011). 학업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직접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없으면, 진로준비행동을 잘 해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문승태, 박미하, 2013).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에 주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업을 수행해 나갈 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황매향, 임은미, 2004).

더 나아가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자녀의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시사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 외적 변인의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연희, 2011; 한수민, 오인수, 2014; Huang & Hsieh, 2011; Keller & Whiston, 200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연희(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2013)은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학습관여는 아동의 자아개념을 매개로 진로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쳤고(장영은, 2010), 한민영(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학습관여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Fan과 Chen(2011) 역시 부모의 학습지도, 교육환경지원 및 교육적 지지가 학습자들의 학업적 흥미나 자신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학습관여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간과하였고, 부모학습관여와 아동의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 두 변인의 다중매개 효과 역시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여 환경적 변인(부모변인)과 아동의 개인변인들(학업 및 진로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과 구분하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미영, 2017; 서현석, 2014; Aunola & Nurmi, 2005; Shanahan, McHale, Crouter, & Osgood, 2007). 그런데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난미와 이은경(200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학습관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반대로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ase와 Dahlbeck(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관여는 여학생의 진로변인을 예측하지만 남학생의 진로변인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영향력은 남학생의 진로변인만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Grolnick과 Slowiaczek(1994)는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이 아닌, 고유의 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변인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각각 나누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구조관계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진로발달은 각 시기마다 요구되는 과업과 수준이 다르므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 진로발달의 양상은 다르다(Herr et al., 2004).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변인과 함께, 진로성숙,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주로 이루어져왔던 진로성숙 연구를 확장하여, 초등학생들의 진로성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학습 관여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아동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의 진로성숙을 위한 부모교육의 시사점을 얻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 및 학부모 상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4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심의를 통과한 뒤, 법적 보호자 및 학생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592부 배부하여 57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64부를 제외한 508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243명(47.8%), 여학생 265명(52.2%)이었고, 5학년 252명(49.6%), 6학년 256명(50.4%)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은미(1998)가 개발한 부모행동검사를 바탕으로 김종덕(2001)이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걱정성과 추구, 학업진보격려, 학업 정보제공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 선택권 부여는 “부모님은 공부에 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민주적 규칙제공은 “부모님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걱정성과 추구는 “부모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고 하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진보 격려는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이겨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 정보제공은 “부모님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 주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2이고 어머니 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었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66~.83 사이였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학업수행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힘든 과제를 수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오민영(2015)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오민영(2015)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토대로 과제난이도 선호경향(문항예시: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자기조절효능감(“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자신감(“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역채점)의 3개 하위요인,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90이었고,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의 신뢰도는 .87, 자기조절 효능감은 .87, 자신감은 .81이었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F: 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은경(2001)이 타당화하고, 최현주(2014)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25문항으로, 직업정보 수집(문항예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해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목표설정(“앞으로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계획수립(“앞으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문제해결(“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자기평가(“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의 5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50~.81로 나타났다.

4) 진로성숙

아동의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정익중, 임진영과 황매향(2011)이 개발 및 타당화한 초등학교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은 진로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적 연속선상의 개인의 위치와 동일한 연령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대한 성취수준으로 정의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총 22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자기이해 6문항(문항예시: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독립심 4문항(“부모님이 내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라고 결정해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계획성 7문항(“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보곤 한다”), 일에 대한 태도 5문항(“나에게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갖지 않겠다” 역채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6이었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54~.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3.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변인들의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산출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각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판

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다. 절대 적합도 지수 χ^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표집이 클 때 유의할 수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형 평가를 위해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였다. 비교적합도 지수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가 .95이상이거나 모수 불일치성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05 이하이며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가진 모형으로 보았고(Hu & Bentler, 1999), TLI와 CFI가 .90~.95이거나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RMSEA가 .08~.10이면 보통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Rindskopf, 1984). Bootstrapping은 매개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BC(bias-corrected) 95%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도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I. 연구 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의 정규성을 보여주는 왜도와 첨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극단적이라고 보며, 첨도의 절대값이 8.0 미만이면 적절하고 8.0~20.0이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20.0보다 크면 분포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0). 왜도와 첨도를 검토했을 때, 본 연구의 표본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학습관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부학습관여와 모학습관여($r = .809, p < .01$), 부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 = .404, p < .01$), 부학습관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408, p < .01$), 부학습관여와 진로성숙($r = .389, p < .01$), 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 = .389, p < .01$), 모학습관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381, p < .01$), 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r = .428, p < .0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577, p < .0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r = .496, p < .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r = .564, p < .01$)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n = 5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부(모)	부(모)	부(모)	부(모)	부(모)	부(모)							
1.부(모)학습 선택권	1												
2.부(모)민주규칙제공	.676** (.592**)	1											
3.부(모)적정성과	.657** (.637**)	.732** (.732**)	1										
4.부(모)학업진보경려	.522** (.520**)	.683** (.607**)	.522** (.515**)	1									
5.부(모)학업정보	.495** (.446**)	.539** (.472**)	.712** (.695**)	.297** (.280**)	1								
6.부(모)학습관여	.813** (.792**)	.881** (.839**)	.892** (.883**)	.728** (.727**)	.766** (.740**)	1							
7.학업적 자기효능감	.302** (.303**)	.376** (.322**)	.371** (.351**)	.274** (.232**)	.323** (.337**)	.404** (.389**)	1						
8.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77** (.360**)	.319** (.253**)	.397** (.369**)	.203** (.177**)	.361** (.336**)	.408** (.381**)	.577**	1					
9.자기이해	.337** (.365**)	.372** (.369**)	.344** (.385**)	.290** (.302**)	.262** (.297**)	.391** (.431**)	.475**	.561**	1				
10.독립심	.030 (.048)	.055 (.089)	-.027 (.007)	.152** (.157**)	-.115** (-.070)	.017 (.055)	.108*	.132**	.264**	1			
11.계획성	.345** (.382**)	.313** (.282**)	.380** (.393**)	.169** (.175**)	.370** (.792**)	.390** (.414**)	.467**	.590**	.650**	.034	1		
12.일의태도	.249** (.247**)	.325** (.287**)	.291** (.300**)	.290** (.277**)	.167** (.792**)	.320** (.331**)	.376**	.340**	.485**	.270**	.424**	1	
13.진로성숙	.334** (.363**)	.370** (.356**)	.344** (.377**)	.312** (.316**)	.239** (.792**)	.389** (.428**)	.496**	.564**	.827**	.545**	.738**	.763**	1
평균	3.65 (3.69)	3.90 (3.96)	3.66 (3.80)	3.80 (3.75)	3.35 (3.53)	3.68 (3.75)	3.49	3.76	4.12	3.59	3.77	4.08	3.89
표준편차	.73 (.72)	.73 (.79)	.77 (.75)	.74 (.76)	.85 (.85)	.62 (.62)	.593	.62	.68	.73	.76	.74	.52
해도	-.42 (-.44)	-.64 (1.02)	-.37 (-.42)	-.70 (-.53)	-.25 (-.19)	-.51 (-.37)	-.174	-.40	-.56	-.06	-.14	-.74	-.02
첨도	.41 (.35)	.59 (.23)	.06 (-.04)	.69 (.08)	-.06 (-.42)	.80 (.52)	.258	-.02	-.38	-.32	.27	.25	-.79

** p < .01.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부·모 학습관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chi^2(199) = 2597.32$, $p = .00$, TLI=.67, CFI=.72, RMSEA=.15 SRMR=.073로 나타났다. RMSEA가 .10보다 높고 CFI가 .90보다 낮아서 모형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Hu & Bentler, 1999). 수정적합도 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한 결과, 부모학습관여 5개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의 수정적합도 지수가 모두 높았다. 이론적으로도 아버지변인과 어머니변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고(정정애, 2010), 부모학습관여 5개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 오차변량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오차변량 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차항에 공분산을 각각 설정하였다. 부모학습관여의 하위 5개 측정변인의 오차항에 공분산을 설정 한 후에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194)=872.50$, $p = .00$, TLI=.90, CFI=.92, RMSEA=.08, SRMR=.06로 CFI가 .90보다 높고 SRMR이 .08보다 낮아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측정모형에서 각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신뢰도와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구인신뢰도(CR)값과 평균분산추출(AVE)값을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화 λ 와 CR 값과 AVE 값을 사용하였다. 표준화 λ 값이 0.7이상이고, AVE 값이 0.5보다 크고 CR 값이 0.7보다 크면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간주한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4). 변별타당도는 요인 간 상관계수 값이 0.9보다 작고, \sqrt{AVE} 가 상관계수 값보다 커야 한다(Hair et al., 2014). 먼저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인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산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인신뢰도는 .69로 .70에 근접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잠재변인의 구인신뢰도(CR)는 .71 ~.91의 범위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인 .70보다 높았고 평균분산추출(AVE)은 부학습관여 .59, 모학습관여 .5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6로 판정기준인 .50보다 높았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45, 진로성숙 .42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은 평균분산추출(AVE)의 판정기준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 진로성숙의 하위변인인 독립심의 낮은 경로계수 값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평균분산추출의 값이 낮은 이유는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신감과 독립심의 표준화계수 값이 작을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아동의 시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인숙(2011)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적었으며,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한 연구(송인섭, 정미경, 김효원, 최영미, 2011)에서도 다른 변인에 비해 독립성이

.20으로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평균 분산추출의 판정기준 .50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평균분산추출의 값이 모두 .50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인 독립심은 각각의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의미 있고 필요한 하위변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 자신감과 독립심을 하위요인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3.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04, CFI=.920로 .90보다 높았으며, RMSEA=.083이며, SRMR=.061로 .08보다 낮아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모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의 경로($b = .309, p < .001$), 부학습관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로($b = .186, p < .05$), 모학습관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로($b = .303, p <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성숙의 경로($b = .170, p < .05$), 부학습관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b = .177, p < .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성숙에 있는 경로($b = .461, p <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b = .951, p < .001$)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부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의 경로($b = -.017, p > .05$), 모학습관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73, p > .05$).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t
부학습관여	→ 진로성숙	-.017	-.016	.071	-.236
모학습관여	→ 진로성숙	.309	.282	.077	4.030***
부학습관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186	.204	.079	2.368*
모학습관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303	.318	.084	3.621***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170	.147	.088	1.925*
부학습관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77	.148	.081	2.201*
모학습관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73	-.059	.086	-.84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461	.525	.063	7.329**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951	.725	.086	11.101***

* $p < .05$. ** $p < .01$. *** $p < .001$.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부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에 이르는 경로와 모학습관여에서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들을 제거하여 간명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간명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과 간명모형의 TLI와 CFI 값이 .90보다 크고, SRMR값이 .08보다 작아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간명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0.772, 자유도 차이가 2이고 p 값이 .680으로 χ^2 값의 감소가 자유도의 감소를 만회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명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되었고, 간명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연구모형과 간명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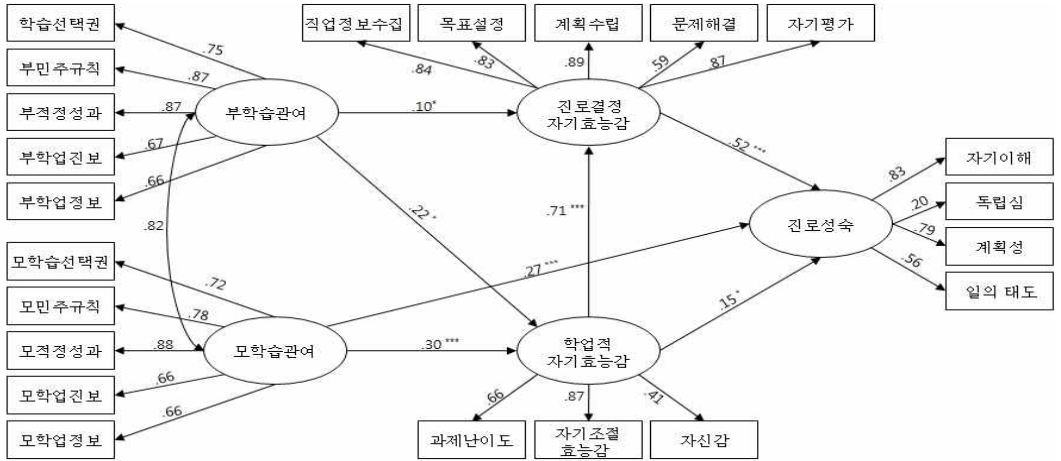
모형	χ^2	df	p	TLI	CFI	SRMR	RMSEA
연구모형	872.498	194	.000	.904	.920	.0606	.083 [.077, .089]
간명모형	873.270	196	.000	.905	.920	.0605	.083 [.077, .088]
차 이	0.772	2	.680				

최종모형에서 각 잠재변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최종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모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b = .295, p < .001$), 부학습관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b = .197, p < .05$), 모학습관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b = .289, p <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성숙($b = .170, p < .05$), 부학습관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 = .126, p < .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성숙($b = .459, p <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 = .935, p < .001$)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표준오차	t
모학습관여 → 진로성숙	.295	.269	.050	5.886***
부학습관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197	.215	.078	2.534*
모학습관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289	.304	.082	3.542***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170	.148	.086	1.970*
부학습관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26	.105	.054	2.30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459	.522	.062	7.390***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935	.715	.083	11.288***

* $p < .05$. ** $p < .01$. *** $p < .001$.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최종모형

4.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에 매개경로를 나타내는 팬텀변인을 설정한 팬텀모형에서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Bootstrapping 절차는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표본이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부학습관여로부터 진로성숙의 경로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이는 부학습관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속적인 경로를 통해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경로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p	BC 95%신뢰구간
부학습관여→학업적 자기효능감→진로성숙	.034	.033	.032	.100	[-.005, .121]
부학습관여→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성숙	.058	.052	.029	.023	[.006, .125]
부학습관여→학업적 자기효능감→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성숙	.085	.081	.042	.025	[.010, .175]
모학습관여→학업적 자기효능감→진로성숙	.049	.045	.037	.074	[-.005, .154]
모학습관여→학업적 자기효능감→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성숙	.124	.110	.045	.001	[.054, .243]

IV. 논의

이 연구는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부모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에서 모학습관여는 자녀들의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다중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여 간접적 영향 역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학습관여는 매개변인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이 부모학습관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자신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가 긍정적 학습관여를 통해 자녀의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진로발달에 부모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진로발달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Mitchell 1996; Schultheiss & Blustein, 1994). Desforges와 Abouchaar(2003)는 부모학습관여는 자녀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이 다른 요인보다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관여하며, 자녀의 소질, 적성을 찾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며, 자녀들의 학습과 관련된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자녀의 진로성숙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은 어머니와 다른 특징과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현석, 2014; Aunola & Nurmi, 2005; Shanahan et al., 2007). 예를 들어 김충기와 천귀순(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 변인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 변인이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의 학습관여와 어머니의 학습관여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에 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학업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높은 수준의 과제에 도전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Zunker(2002)는 아동은 발달단계에 알맞은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아동기의 학업적 경험이 진로의 경험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지며, 부모 역시 진로영역보다는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관심, 목표설정으로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부모는 자녀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일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

록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부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단독 매개효과가 존재하였지만, 모학습관여부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이르는 경로 자체가 유의하지 않다. 아직까지 부모학습관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아 이 결과를 다른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선행연구들(김수리, 이재창, 2007; 박외자, 2010; Lease & Dahlbeck, 2009; Turner & Lapan, 2002)에서 부모 관여변인이 자녀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부모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가 자녀의 공부목표와 성과를 함께 검토하여 알맞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녀가 자신의 미래 직업에 관심을 갖고, 그 직업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결과는 아버지 변인과 어머니 변인에 따라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각각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김예수와 조봉환(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초등학생 자녀에게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 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학습관여는 자신의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의 학습관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이 촉진된다고 하였다(황희숙, 김은희, 주희진, 2012). 반면,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아동기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보다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아동들이 인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역시 추후 연구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주로 진로성숙 연구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환경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초등학생 시기에 진로성숙의 발달과정을 밝히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이른 나이부터 진로발달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진로상담 및 교육 영역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진로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관련 변인을 살펴본 것 역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한다면,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념할 것은 부모학습관여를 자녀들에게 통제로 인식되거나 압력으로 지각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방식으로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제나 학업 압력은 오히려 아동의 지적발달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종백, 김준엽, 2009). 따라서 부모는 긍정적인 학습관여를 통해 자녀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학업 측면과 진로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진로성숙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변인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인 간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부모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였다(문은식, 김충희, 2003; 양난미, 이은경, 2008). 따라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학습관여의 영향을 단순히 학업적인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아동의 진로발달 영역에서 살펴본 것 역시 이 연구의 의의 중 하나로 여겨진다.

넷째, 부모의 성별에 따른 긍정적 학습관여 영향의 차이를 밝힌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는데, 아버지의 학습관여는 아동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즉, 아버지들은 자녀의 학업과 양육을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보다 다정한 모습으로 공감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들과 상의할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학습관여와 자녀의 지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지각에만 의존하는 연구결과만으로는 양방향적 특성을 지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를 지각하는 학습관여 변인을 함께 측정하여 부모의 지각과 자녀의 지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은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5, 6학년 학생이다. 지역 및 학교환경에 따라 개인요인(성별, 자아존중감 등), 가정요인(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습관여도, 부모양육태도 등), 학교요인(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 등이 다를 수 있기에 아동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추출하고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여 지

역 및 학교환경에 따른 표본 집단의 차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구조방정식을 사용해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인과관계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횡단적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발달과정이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에 대한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조사하는 종단 연구를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모, 심혜숙(2010).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부모학습관여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827-1840.
- 고복순, 김영혜(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2), 29-42.
- 공인규, 정홍식, 안창규(2007).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진로장애요인의 비교분석. **청소년학 연구**, 14(1), 127-154.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 김미영(2017).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김수리, 이재창(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예수, 조봉환(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1), 87-103.
- 김인숙(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간 의사소통, 학습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김종덕(200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김종백, 김준엽(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충기, 천귀순(2003).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성격특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6(2), 25-44.
- 김홍석, 김정섭(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23-244.
- 김홍석, 심혜숙(2009). 자기조절학습과 부모관여형태에 따른 전환기 초등학생의 학업성취기준. **상담학연구**, 10(4), 2321-2333.
- 문승태, 박미하(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85-204.

- 문은식, 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외자(2010).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박한샘(2010). 초등학생의 직업포부와 직업기대에 대한 선호도. **진로교육연구**, 23(4), 173-189.
- 서현석(201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후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교.
- 소연희(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0(4), 203-220.
- 송인섭, 정미경 김효원, 최영미(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연구**, 20(3), 151-163.
- 신은영, 김누리(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탐색. **아동교육**, 13(2), 185-199.
- 양난미(2008). 진로상담 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9(2), 537-550.
- 양난미, 이은경(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오민영(2015). 다중지능에 기초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지연(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 이진선, 이규민(2015).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학연구**, 28(1), 1-21.
- 이현림(2003). **현대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임은미(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장영은(201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에 애착과 자아개념이 미치는 효과: 성차,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관하여. **대학가정학회지**, 48(6), 71-82.
- 정경은, 이해경(200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59-79.
- 정의중, 임진영, 황매향(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24(3), 169-194.
- 조효정, 황매향(2014). 직업체험중심 진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및 학

- 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5(4), 285-312.
- 채진영(2010).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11-121.
- 최현주(2014).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진로인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 검사 요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민영(2013). 부모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한상근(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수민, 오인수(2014).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와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1), 261-281.
- 한수정(2013).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5(5), 559-566.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매향, 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황희숙, 김은희, 주희진(201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2(2), 409-430.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 1144-115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187-206.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form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187-249.
- Clutter, C. (2010). The effects of parental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areer choice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krex.k-state.edu>
- Desforges, C., & Abouchar, A. (2003).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parental support and family education on pupil achievement and adjustment: A literature review*. Retrieved

from <http://dera.ioe.ac.uk/6305/1/rr433.pdf>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 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 1-22.
- Flores,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27.
- Gottfredson, L. (1981). Circumspec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Grolnick, W. S., & Slowiaczek, M. L. (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 237-25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4).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Herr, E. L., & Crammer, S. H., Niles, S. G.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4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Huang, J. Y., & Hsieh, H. H. (2011). Linking socioeconomic status to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factors: A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 452-461.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198-217.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Lease, S. H., & Dahlbeck, D. T. (2009). Parental influences, career decision-making attributions, and self-efficacy: Differences for men and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 95-113.
-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 101-127). NJ: Wiley.

- Magnuson, C. S., & Starr, M. F. (2000). How early is too early to begin life career planning? The importance of the elementary school year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89-101.
- Mitchell, L. K. (1996).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 233-280.
- Rindskopf, D. (1984). Using phantom and imagina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ize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49*, 37-47.
- Schultheiss, D. P., & Blustein, D. L. (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159-166.
- Schunk, D. H., & Meece, J. L. (2006). Self-efficacy development in adolescence.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5*, 71-96.
- Shanahan, L., McHale, S. M., Crouter, A. C., & Osgood, D. W. (2007). Warmth with mothers and fathers from middle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Within- and between-families comparis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551-563.
- Song, J., Bong, M., Lee, K., & Kim, S. I. (2015).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7*, 821-841.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2nd 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urner S., & Lapan R. T. (2002). Career self-efficacy and perceptions of parent support i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44-55.
- Young, R. A., & Friesen, J. D. (1992). The intentions of parents in influenc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198-206.
- Zunker, G. V.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6th Ed.). New York: Brooks/Cole.

* 논문접수 2018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9월 12일 / 게재 승인 2018년 9월 19일

* 김대영: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실과교육전공으로 학사학위,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실과·환경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운남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아동심리, 상담심리, 부모교육, 다문화교육, 진로교육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E-mail: cooler6965@hanmail.net

* 정주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학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교육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긍정심리, 진로상담, 자기자비, 상담자 자기돌봄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E-mail: jjoeng@jnu.ac.kr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Positive Academic Involvement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im, Daeyoung**

Joeng, Ju-ri***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 matur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 city. With parental or legal guardian permission, 5th and 6th grad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asked to complete a survey packet consisting of parental positive academic involvement,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cales. A total of 508 surveys were obtained after data screening.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mployed and the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by a bootstrapping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 maturity.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only on the relationships of patern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 maturity. Therefore, parents' academic involvement can facilitate their children's career maturity through improving their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 This study was the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 First Author, Teacher, Unnam Elementary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